

오롯한 시간이 오늘에게 전하는 이야기

선비이야기 여행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공사
KOREA TOURISM ORGANIZATION

선비이야기
이행



행정구역이 아닌 테마의 관점에서 대한민국을 다시 바라보다

새로운 출발을 위해서, 우정을 다지기 위해서, 둘만의 로맨스를 위해서, 휴식과
쉼이 필요해서,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해서 등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여행을
생각합니다. 그런 곳을 찾으려고 긴 여정을 계획하고, 목적에 꼭 맞는 여행지를
발견하면 그곳이 지구 반대편이라고 하더라도, 몇 시간이 걸려도 비행기나 배에
올라 여행을 떠납니다. 하지만 여행이 꼭 멀리 떠나야만 하는 것일까요?
내가 몰랐던 멋진 곳이 내 주위에 있다면 굳이 멀리 떠날 필요가 있을까요?

멀리서 찾지 않아도 멋진 곳이 우리 가까이에 있습니다. 가까이 있기에, 쉽게
닿을 수 있는 곳이기에 미처 그 가치를 모르고 있던 곳, 그곳이 바로 우리의 땅,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한민국 곳곳을 여행지의 관점에서 다시금 살펴
보고 그 가치를 재 조명해 보고자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을 선정해 알리기로
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10개 권역을 선정해 대한민국 대표
관광지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각 권역에 있는 3~4개 지방 자치단체는 지역의 특색 있는 관광명소를
개선하고 연계하여, 테마가 있는 고품격 여행코스로 여행자들을 맞이합니다.
이 책은 바로 그 고품격 여행코스를 알리는 여행책자이자 가이드북입니다.



blog.naver.com/ktourbest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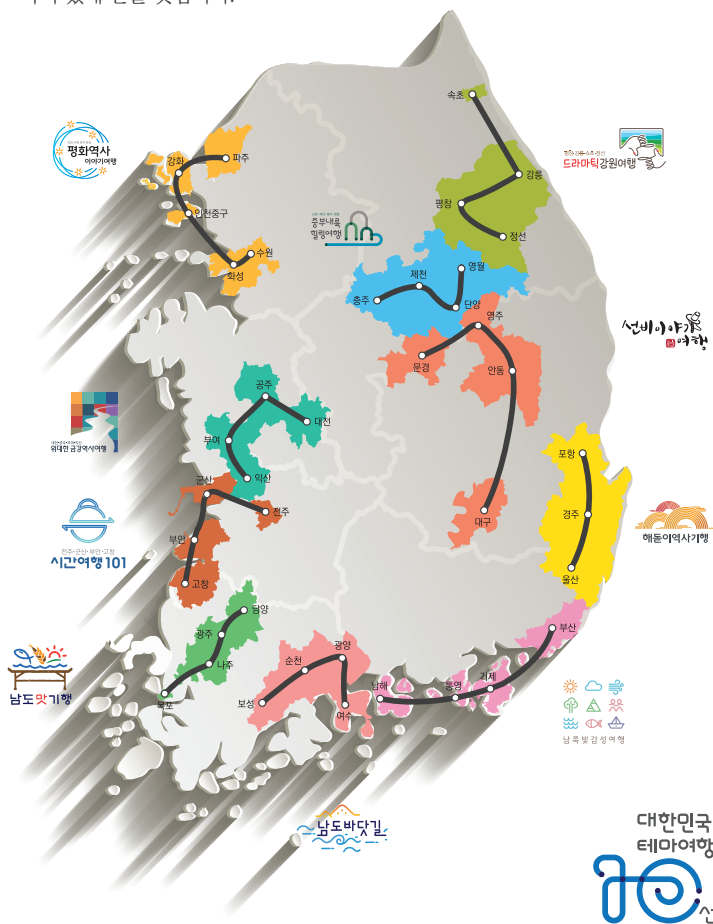


[instagram.com/ktourbest10](https://www.instagram.com/ktourbest10)



ktourbest10.visitkorea.or.kr

대한민국의 전국을 아우르는 총 39개의 도시, 10개의 색다른 테마가 당신의 여행을 더 즐겁고 가치있게 만들 것입니다. 꼭 보아야 할 곳, 꼭 들려야 할 곳을 혹시나 놓치고 지나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각 지역의 대표적인 관광지와 숨겨진 명소까지 남김없이 담았으며, 여행하는 동안 여행객 모두가 즐겁기를 바라는 마음까지 가득 담았습니다.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은 당신의 여행을 더 즐겁고 가치 있게 만들 것입니다.



그곳에 가면

그곳으로의 초대

04. 테마여행 10선 사업 소개

그곳의 분위기

10. 권역 테마 소개

그곳의 이야기

12. 대구

18. 안동

26. 영주

36. 문경

그곳의 기억

14-17. 대구

20-25. 안동

28-33. 영주

38-41. 문경

43. 보조코스

그곳의 재미

44. 축제

46. 쇼핑(음식, 특산물)

그곳에 머무르기

48. 숙박

50. 교통

선비정신은 조선시대의 노블레스 오블리주였다



영주 무섬마을



선비이야기 여행은 현대인의 삶에 스며있는 선비의 자취와 이야기를 접할 수 있는 한국적인 인문콘텐츠가 풍부한 지역으로 몸과 마음이 맑아지는 선비이야기 명소를 직접 방문하고 체험 할 수 있는 여행지이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할 말은 당당히 하고 왕이 잘못을 하면 죽음을 무릅쓰고 바로 잡아야 한다”

선비이야기여행은 세상 어떤 풍파에도 꺾이지 않았던
선비의 이야기가 지역 곳곳에 담겨 있습니다.



선비라는 말을 떠올리면 우리는 고집 세고, 체면만을 중시하던 고루한 학자를 떠올리게 됩니다. 유교의 이념만을 숭상한 나머지 실용적 학문을 배척해 근대 사회로의 발전을 더디게 만든 장본인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선비정신의 면면을 살펴보면 이런 오해는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선비는 예로부터 학식과 인품을 두루 갖춘 사람으로 관직과 재물을 탐내지 않는 고결한 인품을 지닌 사람을 이르던 말로, 유교 이념을 구현하던 신분 계층을 말합니다.

“선비가 갖추어야 할 조건을 살펴보면 국가에 충성하고, 백성을 어질게 대하며, 학문을 갈고 닦아 인간으로서 갖추어야 할 예(禮)와 덕(德)을 생명처럼 여기며, 자신의 영달을 위해 사회에 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 또한 부당한 방법으로 재물을 탐해서는 안 되고, 청렴과 결백을 지켜야 하며, 무엇보다 올바르게 옳은 일은 목숨을 바쳐서라도 막아야 한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할 말은 당당히 하며, 왕이 잘못을 하면 죽음을 무릅쓰고 바로잡아야 하고, 국난이 닥치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앞장서서 싸워야 한다”

이처럼 선비정신 면면에 흐르는 이념은 높은 수준의 도덕적 의무로서 사회 고위층 인사에게 요구되는 서양의 노블레스 오블리주(noblesse oblige)와 닮아 있습니다.



동양과 서양은 지구 반대편에 위치해 문화와 제도가 다르지만, 선비정신과 노블레스 오블리주는 오묘하게 맥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지위와 특권을 누리지만 하는 것이 아니라 투철한 도덕의식과 솔선수범의 자세로 타에 모범이 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자세가 그것입니다.

선비이야기여행은 이런 선비의 이야기가 곳곳에 담겨 있어 선비의 발자취와 이야기를 체험할 수 있는 인문학적 콘텐츠가 풍부하고, 한국적인 정취가 가장 많이 남아있습니다. 따라서 이 지역을 돌아본다는 것은 타임머신을 타고 옛날로 되돌아가 선비들의 생활과 정신을 한눈에 보는 것과 같을 지도 모릅니다.

무엇보다
올바르지 않는 일은
목숨을 바쳐서라도
막아야 한다.
할 말은 당당히 하며,
싸워야 한다.

시대를 관통하던 정신적 상징이었던 선비문화, 선비이야기여행 권역으로 그 문화의 본류를 찾아 떠나보는 건 어떨까요?





대구엔 내가 몰랐던 대구가 있다

대구는 2002년 FIFA 한일월드컵, 2003년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2011년 세계육상선수권대회 등 세계적인 스포츠 대회부터 2013년 세계에너지총회, 2015년 세계물포럼대회 등과 같이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행사를 진행하며 세계에 그 이름을 알린 곳입니다. 이런 거대하고 규모 있는 행사에 가려져있는 대구의 진면목은 알면 알수록 새로운 매력을 품고 있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인 보물 6점과 심지왕사가 절을 세울 당시, 겨울인데도 경내에 오동나무 꽃이 활짝 피었다고 하여 동화사라 이름 붙여진 아름다운 절이 있습니다.

동화사의 입구에는 수목이 우거지고 사철 맑은 물이 폭포를 이루며 흘러 절경을 만들어 냅니다. 경주 최씨 집성촌으로 400년의 역사적 전통을 자랑하는 옷골 전통마을에는 1694년에 지어져 대구에서 가장 오래된 백불고택이 있으며, 전통마을에서는 우리 고유의 전통 체험행사를 다양하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마음에 와 닿는 가사와 절절한 목소리로 이미 세상을 떠난 지금도 많은 이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 가수 김광석을 기리는 김광석 길은 음악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꼭 들려야 할 성지처럼 여겨지고 있습니다. 김광석의 음악이 흐르는 거리를 지난다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낭만적인가요? 김광석이 살았던 대봉동 방천시장 인근 골목에는 그의 삶과 음악을 테마로 한 벽화거리가 조성되어 있어 음악을 사랑하고 음악에 흠뻑 취해보고 싶은 분이라면 꼭 방문해볼 만합니다.

대구 근대골목은 대한민국 근대사의 삶의 모습과 역사를 돌아보며 따뜻한 향수와 추억을 느끼기에 충분한 곳입니다. 먹거리가 풍부한 서문시장에서는 컵마창 등 다양하고 맛있는 음식들이 여행객을 유혹합니다. 대구앞산 공원에는 다양한 산책로와 대구 시내를 한눈에 감상할 수 있는 앞산 전망대가 있습니다. 이곳은 도시와 자연, 역사와 미래를 엮어낸 우수한 건축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대구에는 이렇듯 잘 알려지지 않아 우리가 몰랐던 숨겨진 매력과 재미를 찾는 즐거움이 가득합니다.



영남대로(근대골목/약령시)

3.1운동을 외치던 계단골목, 씹새래한 한약냄새로 가득 찬 약전골목, 진골목 등 근대골목은 우리가 살아온 역사이자 문화재다. 전봇대 전선처럼 얹히고설킨 시간의 흔적을 걷는 길, 대구의 골목길을 걸어보자.

근대문화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골목투어 코스
청라언덕 > 3.1만세운동길 > 계산성당 > 이상화, 서상돈 고택 > 약령골목 > 진골목

대구광역시 중구 약령길



김광석 다시그리기 길/방천시장

음색처럼 이름조차 그리운 가수 김광석. 대구 대봉동에서 태어난 김광석을 추억할 수 있도록 신천 옆에 그를 위한 골목을 만들었다. 가로등마저 희미해 후미진 골목이었으나 화가들이 모여 그에 관한 벽화를 그리고 조형물을 세우고 옛 노래가 흐르게 되면서 전국에서 그의 감성을 따라 찾아오는 사람들로 붐빈다. 골목과 연결된 방천시장은 여행자의 고풍 배를 채워준다.

대구광역시 중구 달구벌대로 2238



서문시장

물길이 모이는 곳은 어김없이 물자가 모이고 시장이 들어선다. 대구는 전체가 사고파는 거래의 장이자 생활터다. 서문시장은 대구의 대표 먹거리와 정겨운 시장음식을 먹을 수 있어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칼국수와 수제비를 합쳐 만든 칼제비가 인기다. 인근에 대구의 명물, 납작만두를 파는 미성당 본점도 있다. 한국전쟁 당시 피난민들이 밀가루로 만두를 빚어 먹었는데 소가 없어 만두피만 구운 데서 유래되었다. 먹거리와 사람 사는 냄새가 흥건한 서문시장으로 찾아가보자.

대구광역시 중구 큰장로26길 45 ☎ 053-256-6341





대구앞산(공원/전망대)

대구의 북쪽을 팔공산이 지키고 있다면 남쪽은 앞산이 맡았다. 앞에 있다 해서 앞산이다. 해발 659m 정상 인근에 있는 전망대에서 대구의 시가지를 한눈에 볼 수 있다. 전망대까지 2~3시간 정도 등반할 수 있지만 케이블카를 이용하면 5분 만에 도착한다. 분지에 햇빛이 가득 담기는 일몰에 가서 야경까지 함께 즐기고 내려오는 것을 추천한다.

대구광역시 남구 앞산순환로 574-87

☎ 053-803-7420





동화사

옷골전통마을

값이 매우 비싸 지체 높은 집안이나 왕이 학자에게 내리는 하사품으로 심을 수 있었던 회화나무가 마을 입구에 서 있어 양반 가옥임을 알리는 옷골마을은 경주 최씨 집성촌으로 토석담으로 둘러진 마을에서 숙박체험을 하거나 전통마을 체험활동을 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 동구 옷골로 ☎ 053-662-39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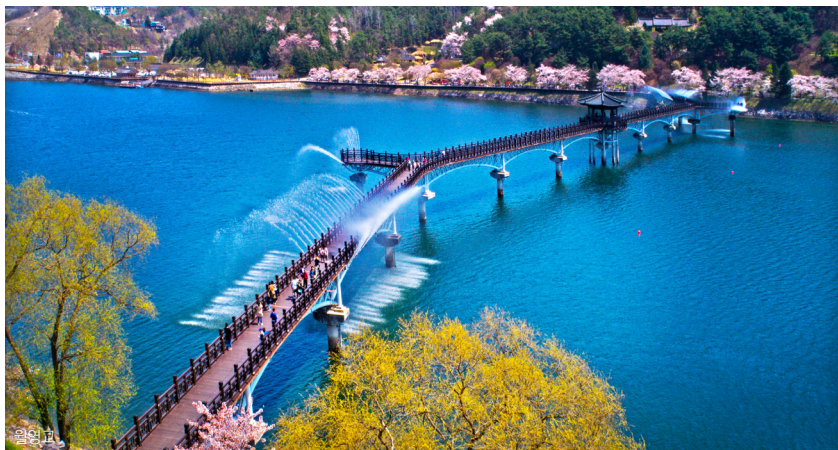
동화사

‘오동나무가 겨울에 상서롭게 꽃을 피웠다.’해서 오동나무 동, 꽃 화, 동화사로 불린다. 옛길인 봉황문을 통해 부처님께 가보자. 불교교리에 따라 다리를 건너고 계곡을 지나는 과정을 거쳐야 비로소 극락세계인 대웅전에 도착한다. 동화사는 템플스테이를 하기 위해 찾는 사람들도 많다. 발우공양과 다도, 예불은 물론 2시간 정도 되는 스님과 함께하는 팔공산 트레킹이 있어 색다른 경험이 된다. 케이블카를 타고 산 정상에서 내려다 보는 팔공산과 대구의 전경이 일품이다.

대구광역시 동구 동화사1길 1

☎ 053-985-0980

전통과 역사를 중시하는 영국은 안동을 선택했다



안동을 설명하기 위해 “왜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은 대한민국의 그 많은 곳들 중에서 하필 안동을 방문했을까?”라는 질문을 던져봅니다. 전 세계의 나라들 중에서도 영국은 특히 전통과 권위, 올곧은 역사를 중요시 여기는 나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영국의 여왕이 대한민국 정신의 원류를 찾기 위해 방문한 곳이 안동이었다는 점은 영국이 중요시하는 가치가 이곳 안동에 담겨 있다는 것을 짐작하게 합니다.

안동은 대한민국의 선비문화가 그대로 살아 전해져 내려오는 곳으로, 세계에 대한민국의 정신을 보여주기에 부족함이 없는 곳입니다. 대표적으로 서에 류성룡의 생애와 학문을 향한 열정이 담긴 병산서원과 퇴계 이황이 제자들을 가르치며 후학을 양성했던 도산서원이 안동의 정신문화를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민간에 흩어져 사라질 위기에 직면한 한국학 자료의 수집, 보존하고 연구와 보급을 위해 설립한 한국국학진흥원 역시 선비정신의 면면을 살펴볼 수 있는 곳이며, 유교랜드는 어렵게만 느껴지는 유교를 쉽게 알아보고 체험할 수 있어 가족과 함께 가 볼 만한 곳입니다. 500년 역사를 지닌 고성 이씨 대종택 임청각은 국내에 현존하는 살림집으로는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고 있어 직접 보면 그 규모에 놀라게 될 것입니다.

물질보다 그 물질을 탄생시킨 정신이,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근간을 이루는 정신문화가 금급하다면 안동은 반드시 가보아야 할 곳입니다. 아이들에게도 살아있는 훌륭한 역사 교과서가 될 것입니다.



안동하회마을

하회마을(병산서원)

600여 년간 이어진 풍산 류씨 집성촌인 하회마을은 2010년 마을 전체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우리나라는 물론 전세계 여행자들이 찾는 안동의 대표 여행지다. 낙동강이 마을을 감싸고 도는 물돌이 마을이라는 뜻으로 하회라 지었다. 해마다 음력 7월 16일 열리는 선유출몰놀이와 불타는 소나무줄기터미를 떨어뜨리는 낙화의식이 매 여름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과 함께 재현된다. 병산서원은 풍산 류씨 집안의 류성룡과 그의 셋째 아들 류진을 기리는 서원이다. 한국 서원 건축의 백미로 손꼽히며, 병산의 아름다운 풍경을 차경한 만대루가 대표적이다. 굽은 나무 가둥을 사용해 자연을 거스르지 않는 기법이 인상적이다.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하회종가길 40 ☎ 054-852-3588





도산서원

퇴계 이황은 호를 퇴계라 지어 평생 물러남을 희망하며 살았다. 57세에 자신의 학문을 깨우치고 학문연구와 후진양성에 매진하기 위해 안동의 도산에 서당을 지었다. 초가삼간이라 할 정도로 조촐한 3칸 건물은 퇴계의 사후 제자들에 의해 도산서당을 포함한 서원으로 지어졌다. 원장실이 있어야 할 건물 위치에 퇴계 이황의 유패가 있는 상덕사를 두어 영원한 원장임을 알리는 제자들의 마음을 담았다.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도산서원길 154 ☎ 054-840-6599



한국국학진흥원

우리나라 학문과 자료를 조사 수집하고 보존 계승하는 연구기관으로 조선 생활사부터 전통건축, 유교와 가례 등 유형과 무형 문화를 아우르는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함께 운영하고 있는 유교문화박물관은 포괄적인 유교의 의미와 가족, 사회, 국가, 미래까지 단계를 밟아가며 전시를 감상할 수 있다. 특별전시는 주로 민간이 소장하고 있는 기록문화유산을 발굴해 전시하는데 한 예로 조선 초 진경산수화의 대가인 겸재 정선의 <금강산> 그림 7점을 새롭게 발굴해 공개하기도 했다.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퇴계로 1997 ☎ 054-851-0700

월영교(임청각)

1998년 4월 고성 이씨 이용태(1556~1586)의 무덤이 발견되었다. 무덤 속에는 미이라와 함께 남편을 그리는 부인의 편지, 자신의 머리카락과 삼을 엮어 만든 한 결례의 미투리가 발견된다. 편지에는 아내가 서로 사랑했던 모습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담겨 있다. 월영교는 이런 부부의 사랑을 기리기 위해 미투리 모양으로 설계했다.

독립운동의 성지, 임청각

상해 임시정부 초대 국무령을 지낸 이상룡 선생의 집으로 이곳에서 9명의 독립운동가를 배출했는데 일제는 이를 못마땅하게 여겨 중앙선 부설을 핑계로 마당 한가운데로 철길이 지나게 만들었다. 현재 철로를 이동시키고 독립운동의 성지로 복원중이다.

경상북도 안동시 상아동, 성곡동



유교랜드

유교문화를 이해하고 배울수 있는 테마파크형 전시체험센터이다. 타임터널을 타고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 16세기 안동에 도착해 선비들과 함께 과거시험도 치르고 재판에 참석할 수도 있다. 읍성 위에 올라가 활을 쏘거나 말을 타는 체험도 가능하다. 선비들의 삶을 체험하는 '에듀테인먼트'의 진수를 맛볼 수 있어 아이들과 함께 여행하기 좋다.

경상북도 안동시 관광단지로 346-30 ☎ 054-820-8800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면 보이니
그 때 보이는 것이
전과 같지 않더라

— 유한준



천재지변에도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곳,
그래서 선비들은 영주를 찾은 것일까?



조선시대 예언서인 <정감록>에서는 전쟁이나 천재지변에도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지역 중 으뜸으로 영주를 꼽습니다. 사리사육과 권력, 세속적 희로애락을 등지고 학문에만 전념하고자 했던 선비들은 영주를 찾았고, 이곳에서 선비문화를 꽃피웠는지도 모릅니다. 주변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 세상의 변화에 일희일비하지 않으며 자신의 학문을 수양하고, 스스로를 발전시키기에 영주만큼 적당한 곳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주세붕의 백운동 서원에서 비롯된 우리나라 최초의 사액서원인 소수서원과 선비정신을 계승하고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하여 역사관 확립의 교육장이 되고 있는 선비촌은 그런 영주의 선비정신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려 말과 조선 초에 세 명의 판서를 배출했다는 삼판서 고택 역시 선비정신이 고스란히 담겨 있으며, 국가문화재 제278호이자 전국 7대 민속마을인 무섬마을은 경북 북부의 전형적인 양반집 구조인 ‘口’자형 구조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주를 말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것 중 하나는 소백산 국립공원입니다. 소백산 국립공원은 지리산, 설악산, 오대산에 이어 우리나라에서 네 번째로 넓은 산악형 국립공원으로 그 아름다움을 즐기기 위해 사시사철 수많은 등산객의 방문이 끊이지 않는 곳입니다. 겨울에는 장중한 백두대간 위로 눈꽃이 만발해 설경의 절정을 이룹니다. 백두대간의 소백산맥 줄기인 봉황산 중턱에 자리 잡은 부석사는 신라 문무왕 16년에 의상대사가 창건하여 화엄교학(華嚴敎學)을 펼친 곳으로 2018년 6월에 “산사, 한국의 산지 승원”이라는 명칭으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되어, 세계가 이미 그 아름다움에 감탄과 칭찬을 아끼지 않은 곳입니다.

어쩌면 선비들은 전국을 돌며 책 읽기 가장 좋은 곳을 찾아 다녔던 것은 아닐까요? 고요한 곳에서 사시사철 아름다운 자연의 변화를 마주하며 학문에 열중하는 동안 세상에서는 느끼지 못했던 이치와 섭리를 깨우쳤는지도 모를 일입니다. 책 읽기와 학문에 열중하는 데 아무것도 방해가 되지 않았던 곳, 그곳이 영주입니다.



소백산국립공원(소백산자락길)

한반도 중심을 잡고 있는 백두대간의 줄기에 자리한 소백산은 ‘천상의 화원’이라 불리며 봄에는 철쭉, 여름에는 야생화, 가을에는 단풍, 겨울에는 상고대가 피어 사시사철 빼어난 경치를 자랑한다. 연화봉에서 능선을 따라 소백산 정상인 비로봉의 길에서 백두대간의 장관을 마주한다. 영남 제1의 폭포라 불리는 희방폭포와 청량한 다리안 계곡이 여행자의 심터를 자청한다.

경상북도 영주시 풍기읍 죽령로 ☎ 054-638-6196

소수서원/선비촌

소수서원은 우리나라 최초의 사액서원이다. 성균관에서 있던 주세붕이 최초의 서원인 백운동 서원을 만들고 당시 풍기 군수였던 이황이 지방교육에 힘쓰도록 왕에게 상소를 올려 명종은 편액을 내렸다. 흥선대원군 때 수백 개의 서원 중 47개만 두고 모두 없어졌는데 소수서원이 살아남은 이유도 바로 이전 왕이 하사한 곳이라 남겨졌다. 입구의 당간지주는 서원이 통일 신라 사찰인 속수사 절터에서 만들어졌음을 증명한다. 서원은 크게 두 공간으로 나뉜다. 성리학의 경전을 읽거나 강연을 듣는 학문의 공간과 유교 성현의 위패를 모시는 사당의 공간이 있다. 때문에 서원을 교육기관인 동시에 종교건물이라 한다. 소수서원의 뒷문으로 나오면 솔밭인 학자수림이 나온다. 소나무처럼 어려움을 이겨내는 참된 선비가 되라는 뜻에서 조성한 숲이다. 소백산의 물줄기로 이어진 죽계천은 선비들의 풍류를 즐기던 곳이다. '경(敬, 공경할 경)자 바위는 성리학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첫 번째 덕목을 상징한다. 유교박물관을 거치면 선비촌이 나온다. 선비의 생활상을 이해하기 위해 만든 마을로 전통문화체험 및 한옥체험을 할 수 있다.

경상북도 영주시 순흥면 소백로 2740 ☎ 054-639-7691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게 되면 보이니
그 때 보이는 것은
전과 같지 않으리라

— 유한준



부석사

의상대사가 화엄경을 설파한 신라화엄종의 본찰로 빛날 화(華)자로 배치되어 입구에서 안으로 들어갈수록 공간이 계단처럼 올라가 빛나는 극락에 닿는 듯하다. 일주문에서 범종루 앞까지 하품단, 범종루에서 안양루 안마당까지 중품단, 무량수전이 상품단으로 극락에 이른다.

경상북도 영주시 부석면 부석사로 345

☎ 054-633-3464



삼판서고택(후생시장)

고려 말부터 조선초까지 판서 세 명을 배출한 삼판서 고택의 첫 번째 판서는 고려 공민왕 때 형부상서를 지낸 정운경이다. 조선 개국공신인 정도전의 아버지다. 사위 황유정 판서가 고택을 이어받고 그의 사위인 김소량에게 물려주었고 그의 아들 김담이 이조판서에 올랐다. 1955년 생긴 후생시장은 2014년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건물을 재정비하고 옛 상점을 부활시켰다. 현대의 편의는 살리고 재래시장의 온기는 그대로 남겨 독특한 시장문화를 만들어 다시 한 번 비상을 꿈꾸고 있다.

경상북도 영주시 선비로181번길 56-1 ☎ 054-631-0444



무섬마을

멀리서 보면 물 위에 떠있는 섬처럼 보여서 물섬마을이라 불렀다. 옛날에는 안개가 많이 끼서 일제강점기 때 3.1만세운동을 이끌었던 애국지사들이 일제의 총칼을 피해 본거지로 삼았고 전쟁에도 피해를 많이 입지 않았다. 1970년대 콘크리트 다리가 세워지면서 외나무다리가 사라졌다가 2005년 마을의 옛 모습을 복원하면서 세웠다. 지금의 외나무다리보다 더 폭이 좁았는데 자칫하면 빠지기 쉬워 지팡이를 짚으며 걷기도 하고 소에 타고 건너기도 했다. 조심해서 걷게 되니 느리게 걷게 된다. 길지 않은 시간이지만 상념을 잊고 집중할 수 있는데다 여유까지 찾을 수 있다. 10월에는 외나무다리 축제가 열리는 데 아이부터 어른까지, 결혼한 신랑신부부터 상여까지 인생이 건넌다.

경상북도 영주시 문수면 무섬로 238-2 ☎ 054-636-4700





때를 만나지
 못하면 숨어 살고
 때를 만나면
 세상에 나와
 베풀하는 것이
 선비의 떳떳한 일이다

— 을파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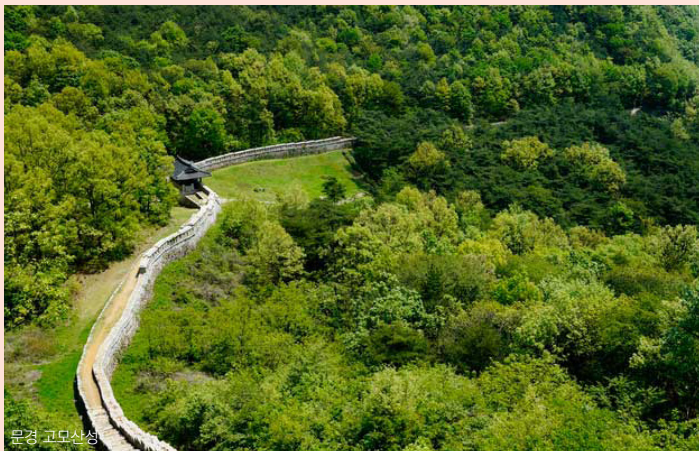
알면서도 실천하지 않는
것은 참된 앎이 아니다

_ 퇴계 이황



안동 월영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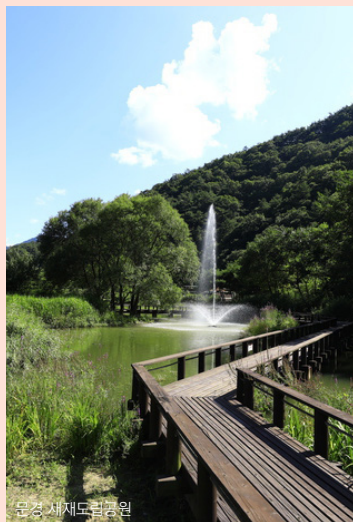




선비들이 과거를 보기 위해 꼭 넘어야 했던 고개

문경은 예로부터 서울과 영남을 이어주던 고갯길인 문경새재로 널리 알려진 지역입니다. 문경새재는 ‘새재’ 혹은 ‘조령(鳥嶺)’이라 하는데 높이 1,017m인 조령산은 ‘새도 날아서 넘어가기 힘들다’라는 뜻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선비를 빼놓고는 문경의 가장 대표적인 장소인 문경새재를 말할 수 없습니다. 문경은 장원급제를 꿈꾸는 선비들이 과거를 보기 위해 한양으로 넘나들던 길입니다.



문경(聞慶)이라는 이름과 옛 지명인 문희(聞喜)에서 드러나듯 ‘경사로운 소식, 기쁜 소식을 듣게 된다’는 의미는 과거를 보러 다니던 길이라는 역사적 사실과 관련이 있습니다. 문경새재는 과거 급제를 바라는 수많은 선비들이 좋아했던 고갯길이었으며 입신양명을 꿈꾸는 선비들이 청운의 꿈을 품고 오가던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영남은 물론이고 호남 지역의 선비들까지 굳이 먼 길을 돌아 이 길을 택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택리지》에서도 볼 수 있듯이 “조선 선비의 반이 영남에서 배출되었다”라는 구절은 수많은 선비와 길손들이 과거를 보기 위해 이곳을 왕래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영남대로 옛길은 고모산성과 토끼비리(토끼벼루의 사투리)가 중심축으로 진남교반의 이슬아슬한 절벽을 지나 과거를 보러 가던 길로, 세상을 향해 출사표를 던진 선비들의 집념이 느껴지는 곳입니다.

저마다 품은 꿈을 이루기 위해 지나다녀야 했던 길, 문경에는 이 길을 오가던 선비들의 자취와 이야기가 지역 곳곳에 면면히 남아있습니다.



문경새재도립공원

조선시대에는 9대 도로가 있었다. 3개의 큰길, 6개의 주요간선과 지방도처럼 좁은 길이 거미줄처럼 엮여있었다. 부산 동래에서 한양도성까지 이어진 360km의 영남대로는 가장 큰 길로 문경을 지나간다. 문경에는 3대 관문이 있었는데 죽령, 추풍령, 조령이다. 문경새재가 놓인 조령은 새도 날아서 넘기 힘들다는 고개다. 다른 2곳보다 길이 짧아 경북 영주와 충북 단양을 하룻길로 이었다. 조선의 실크로드이자 선비들의 과거길로 사용되었다. 선비들은 3대 관문 중에 조령을 가장 좋아했는데 죽령은 죽죽 떨어질 것 같고 추풍령은 추풍낙엽처럼 떨어질 것 같아서 얼씬도 하지 않았다. 조령에 있는 문경새재는 기쁜 소식을 듣는다는 뜻으로 멀리 호남의 선비들까지 돌아서 과거를 보러 갈 정도였다. 일제강점기에 문경새재보다 산이 낮고 평탄한 이화령에 신작로를 개통하면서 인적이 끊기게 되었다. 현재는 복원된 옛 새재 모습과 함께 문경새재 오픈세트장이 자리하고 있다. 주위에 현대적인 건물이나 흔적이 없어 현재도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다.

경상북도 문경시 문경을 새재로 932 ☎ 054-571-0709

레일바이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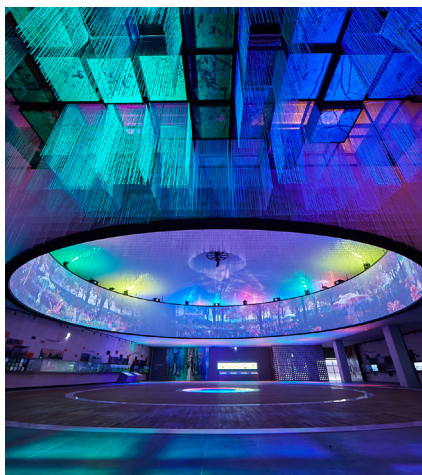
2005년 우리나라 최초의 레일바이크가 철로를 달린다. 30년 전 은성광업소를 비롯한 문경의 탄광에서 석탄을 나르던 철로다. 운행구간은 진남역~구랑리역 방면 (왕복 7.4km), 구랑리역~가은역 방면 (왕복 6.6km), 가은역~먹뱅이 방면 (왕복 6.4km)으로 반환점에서 다시 돌아오는 원점회귀 코스다. 모든 코스가 50분에서 1시간 정도 소요되며 주말에 이용인원이 많으면 그보다 더 소요된다. 진남역 구간은 경북 제1경인 진남교반과 함께 해 달리는 내내 풍광이 아름답다. 가은역 구간은 석탄박물관과 버스터미널이 가까워 이동하기 편리하고 가은 폐역은 분위기 좋은 카페로 변신해 쉬어가기 좋다.

진남역 | 경상북도 문경시 마성면 진남1길 155 ☎ 054-553-8300

구랑리역 | 경상북도 문경시 마성면 구랑로 20 ☎ 054-571-4200

가은역 | 경상북도 문경시 가은읍 대야로 2445 ☎ 054-572-5068





에코랄라

2018년 기존의 석탄박물관 일원을 환경, 에너지, 영상이 결합된 문화콘텐츠 테마파크로 새롭게 오픈했다. 백두대간의 생태와 문화, 미래를 전시한 에코서클, 6가지의 특수효과를 활용해 나만의 영상을 제작하는 에코스튜디오, 친환경 첨단농법으로 식물을 기르는 에코팜이 있다. 어린이들을 위한 색다른 체험과 야외 놀이공간이 준비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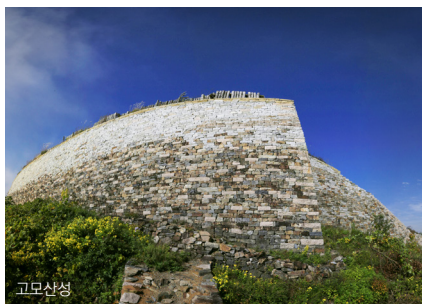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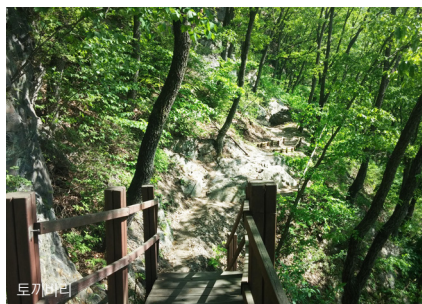
경상북도 문경시 가은읍 왕능길 112

☎ 054-572-6854

문경고모산성/토끼비리

고모산성은 5세기 신라가 세워 고구려와 백제를 견제, 방어한 산성이다. 후삼국에 견훤과 왕건의 치열한 전투가 있었으나 임진왜란에는 나라를 지켜내지 못한 비운의 성이 되었고 1896년 의병전쟁에는 이강년의 부대와 일본군의 격전지가 되었다. 한국전쟁 때도 중요한 방어거점이 되며 빈번한 전투로 홍망의 역사를 아로새기고 있다. 토끼비리는 태조 왕건이 견훤과의 전투에서 쫓길 때 마침 토끼가 지나간 벼랑을 따라 길을 만들어 피신했다는 전설이 전해진다. 돌고개 주막의 꿀떡을 먹으면 과거에 급제한다는 소문이 있어 이후 꿀떡고개라 불렸다.

경상북도 문경시 마성면 신현리





예(禮)가 아닌 것에는
눈길도 보내지 말고
예가 아닌 말은
듣지도 말고
예가 아닌 말은
입에 담지도 말고
예가 아니면
행동하지 마라

_ 논어

말해서는 안 될 것을
말한다면
이는 말이 품격을
잃는 것이요,
행해서는 안 될 것을
행한다면
이는 행동의 품격을
잃는 것이다

— 유만주



둘이 함께하는 행복한 여행

안동 하회마을 안동 구시장 안동민속촌 안동 월영교 문경 문경온천
 ← 문경 석탄박물관 문경 레일바이크 문경 도자기박물관



웰빙 식도락여행

대구 사문진나루터 대구 앞산공원/전망대 대구 대명공연문화거리 대구 동성로 대구 서거정
 ← 안동 구시장 안동 하회마을 안동 월영교 (임청각) 대구 안지랑 곱창골목



고건축답사

영주 부석사 영주 삼판서고택 영주 무섬마을 안동 하회마을 (병산서원) 안동 임청각
 ← 문경 고모산성 문경새재도립공원 안동 월영교 (안동민속촌)



위인열전 여행

안동 도산서원 안동 이육사문학관 안동 구시장 안동 월영교 (임청각) 안동 경복도립기념관
 ← 영주 부석사 영주 소수서원/선비촌 영주 삼판서고택 안동 하회마을



젊은선비여행

영주 소백산국립공원 영주 풍기인삼시장 영주 Y스트리트 문경 레일바이크
 ← 문경 활공랜드 문경 칠라민/사격장

얼씨구 절씨구~ 신명나는 축제 한마당

대구약령시 한방문화축제

〈대구약령시한방문화축제〉는 조선시대 약령시 개장행사를 현대적으로 승화시켜 1978년 제1회 달구벌 축제 행사의 일환으로 개장행사가 개최된 것을 기점으로 매년 5월초 전통 한의약 축제로 대구 약전골목 일원에서 개최된다. 향긋한 약초 냄새와 더불어 현대사회 도시민들의 건강에 대한 호기심을 전통 한의약과 약초로 해소시키고, 다양한 문화관광자원, 그리고 한약 관련 행사가 어우러진 대구약령시한방문화축제는 2001년부터 문화관광축제로 지정되어 한방문화의 진수를 국내 외에 널리 알리는 대표적인 한의약 축제로 자리매김하였다.

시기. 5월 T. 053-253-4729



안동 국제탈춤페스티벌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은 매년 9월 마지막 주 금요일부터 10일간 개최되는 국내 최대 전통문화 콘텐츠 축제이다. 1997년 안동의 문화를 알리기 위한 '탈춤페스티벌97'을 개최하여 문화체육부 '10대 문화관광축제'에 선정되었고, 이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선정하는 '집중육성 축제', '전국축제종합평가 1위', '전국최우수 축제', '대한민국 대표축제'를 거쳐 '2012년부터 3년 연속 '명예대표축제', 2015년부터는 '대한민국 글로벌육성축제'로 선정되어 대한민국 최고의 축제로 명성을 유지해 오고 있다.

시기. 9~10월 T. 054-841-6397~8



*축제 일정은 주최측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영주 소백산철쭉제

영주 소백산철쭉제는 '붉은여우의 소백산 철쭉 꽃나들이'로 소백산과 철쭉제의 아름다움과 자연생태계의 소중함을 알리는 행사이다. 붉은여우와 핑크철쭉과 관련된 공연·전시·체험, 뮤직로드(버스킹, DJ뮤직 등)와 소백산 산신제, 힐링 소백산 체험을 즐길 수 있으며 각종 전시를 비롯하여 건강제험존, 소백철쭉 꽃놀이 포토 미션 등을 다양한 즐길거리가 가득한 축제다.

시기. 5월 T. 054-639-3794



안동 국제태권페스티벌



영주 소백산철쭉제

문경 찻사발축제

문경은 근대 찻사발의 본향(本鄕)이라 할 수 있다. 전국에서 가장 오래된(180년) 망댕이사기요가 있고, 전통 장작가마인 망댕이 가마에서 1,300℃ 이상 고온으로 구워내는 전통방식으로 제작하여 역사와 정통성에서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문경도자기는 전통 장작가마에서 도자기를 생산하고 있어 꾸밈이 없고 자연스러운 모양을 하고 있고, 우리 민족 고유의 순수한 멋과 투박한 정서를 잘 표현하고 있다. 전통이 고스란히 살아 숨쉬며 이어온 세월은 중요무형문화재 명장을 낳아 전국 도예명장 9명 가운데 우리나라 유일의 전통도자기공예부문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된 김정옥 사기장과 천한봉 도예명장, 이학천 도예명장 등 3명이 문경에서 활동하고 있다. 이것이 문경찻사발의 역사성이자 우수성의 원천이라 할 것이다.

시기. 4~5월 T. 054-550-6395



문경찻사발축제



문경찻사발축제

고고한 선비의 땅이 품은 맛 건강한 먹거리

대구-연근

연의 줄기로 얇은 연못 등을 이용해 재배한다. 대구 연근은 전국 생산량 1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더운 기후 특성상 연꽃이 빨리 피고 식용 연근인 '백련'이 다수 피어있다.



안동-간고등어

내륙지방에 위치한 안동 특성상 항구에서 고등어를 수송하는데 걸리는 시간 동안 생선이 상하는 것을 막기 위한 방법으로 염장처리를 진행하는데 유래되었다. 상하기 직전에 나오는 효소와 소금이 어울려 고등어 맛을 배가시킨다.





영주-풍기인삼

소백산맥의 유기물이 풍부한 토양에서 생산되는 풍기인삼은 내용조직이 충실하고 인삼향이 강하며, 유효사포닌 함량이 높아 신진대사 기능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

문경-오미자

다섯 가지 맛이 나는 씨앗이라는 뜻으로 단맛, 신맛, 쓴맛, 매운맛, 짭맛이 난다. 문경은 백두대간에서 뿜어 나온 산들에 둘러싸여 있어 기후, 일조량, 강수량 등 오미자 재배에 특화된 자연조건을 갖추었으며 전국 오미자 생산량의 약 4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숙박 안내

대구

구암서원 (전통문화체험관)	대구광역시 중구 국채보상로 492-58	053-428-9800	www.dtc.or.kr	
표충재 전통체험관	대구광역시 동구 신송검길 17	053-428-9800	www.dtc.or.kr	
베니키아 호텔 수성	대구광역시 수성구 용학로 106-7	1899-1001	www.benikea.com/	

안동

전통리조트 구름에	경상북도 안동시 민속촌길 190	054-823-9001	www.gurume-andong.co.kr	
학봉종택	경상북도 안동시 서후면 풍산태사로 2830-6	054-852-2087	www.hakbong.co.kr	

영주

한국선비문화
수련원

경상북도 영주시 순흥면
소백로 2806

054-631-9888

www.sunbi.info/



문경

지취헌

경상북도 문경시 산양면
잔두리1길 13-4

054-552-3824



한국관광 품질인증 업소란?

관광서비스의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관광 사업 범위 내, 문화체육관광부 및 한국관광품질인증 사무국의 인증을 받은 곳

*상기 속소는 매년 변경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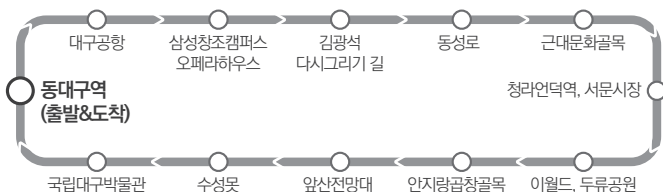
베니키아란?

한국관광공사가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원 하에 국내외 여행객들에게 편안한 쉼터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체인브랜드 사업

*상기 속소는 매년 변경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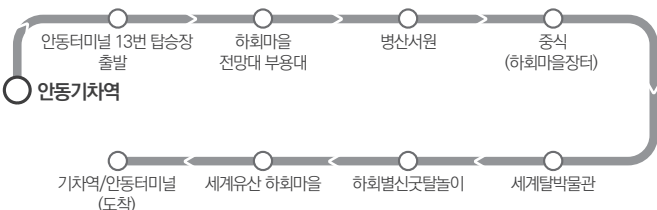
교통 안내

대구 시티투어버스 도심순환형 코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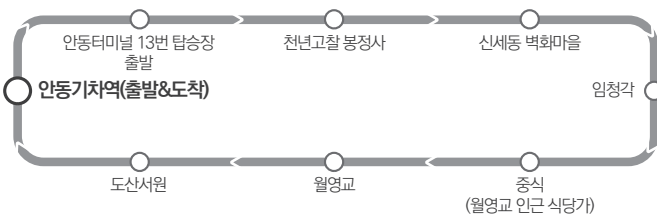
[대구시티투어 도심순환형버스]는 정류장을 9시부터 순환하며 원하는 정류장에 하차하여 주변을 둘러본 후 다음 버스를 탈 수 있습니다.

안동 시티투어버스 하회마을권역코스



* 탑승공원이 없을 경우-명인안동소주공장, 전통한지 공장 중에서 의견 수렴 후 경유

도산서원, 봉정사 권역



* 오전 오후일정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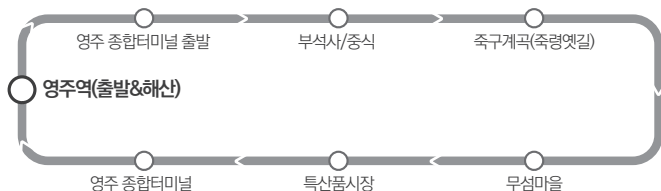
*자세한 사항은 관광안내소 및 해당 지자체에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시티투어버스

1코스 / 토요일



2코스 / 일요일



*진행 코스 및 일정은 운영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발행처 한국관광공사
(26464)강원도 원주시 세계로10
TEL.033-738-3000

선비여행을 하고 오면
내가 조선시대에 태어났다면
어떤 직업이었을까? 라는
물음을 한번쯤 갖게 된다.
높은 계급이었을 거라고
생각하는 편이 마음이 온갖
행복한 상상들을 하게 된다.